

## 연구위원 및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 명단

### 한 국 측

#### 연구위원

- 주 진 오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류 승 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하 중 문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일본지역학과 교수  
이 석 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는 한국측 제3분과 간사)

#### 공동연구자 (논문게재 순)

- 조 성 윤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정 태 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  
정 혜 경            국무총리소속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허 영 란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이 성 환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 일본학과 부교수  
양 현 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일본 측

### 연구위원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縣立廣島大學 人間文化學部 教授 ★
아리마 마나부(有馬學)	九州大學 名譽教授
오니시 유타카(大西裕)	神戸大學 大學院 法學研究科 教授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	東洋英和女學院大學 國際社會學部 專任講師

(★는 일본측 제3분과 간사)

### 연구협력자(논문게재 순)

쓰키아시 다쓰히코(月脚達彦)	東京大學 大學院 總合文化研究科 准教授
오카모토 마키코(岡本眞希子)	臺灣國立成功大學 人文社會科學中心 專案助理研究員
야마다 간토(山田寬人)	廣島大學 非常勤講師
요시오카 히데미(吉岡英美)	熊本大學 法學部 經濟學그룹 准教授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東京大學 大學院 總合文化研究科 准教授
야마나카 지에(山中千恵)	仁愛大學 人間學部 커뮤니케이션學科 講師

## 제4권 목차

양국위원장 공동 인사말

한국측 위원장 서문

일본측 위원장 서문

연구위원 및 공동연구자·연구협력자 명단

전체보고서 목차

한국측 간행사 .....	1
일본측 간행사 .....	3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	5
제1부 한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 .....	9
제1장 주권과 독립 .....	11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	13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하라다 다마키   大韓國國制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	35
-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방식 -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장 권력과 국민 .....	67
조성윤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의식 형성과정과 반일의식 .....	69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쓰키아시 다쓰히코 근대 조선의 국민국가 창출과 입헌군주제론 .....	91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 전체보고서 목차

## 제1권(제1분과편)

### 머리말

### 논문편

- |                       |   |
|-----------------------|---|
| 조범중                   | 古代 韓日關係의 成立<br>- 彌生文化 主體問題에 대한 檢討 -     |
| 하마다 고사쿠               | 古代 日韓關係의 成立<br>- 地域 間의 交流에서 古代國家의 關係로 - |
| 김태식                   | 古代 王權의 成長과 韓日關係<br>- 任那問題를 包含하여 -       |
| 모리 기미유키<br>·하마다 고사쿠   | 古代 王權의 成長과 日韓關係<br>- 4~6세기 -            |
| 노태돈                   |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韓日關係<br>- 7~9세기 -     |
| 사카우에 야스토시<br>·모리 기미유키 | 古代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再編과 日韓關係<br>- 7~9세기 -     |

### 좌담회 토론문

- 고대 한일관계의 성립
-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일관계

### 연구활동기록

## 연구 후 소감

조법종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1분과 활동을 정리하며
하마다 고사쿠	공동연구를 끝내고
김태식	공동연구 말미의 단상
모리 기미유키	공동연구를 마친 소감
노태돈	공동연구를 마치고
사카우에 야스토시	공동연구를 마치고

## 제2권(제2분과 한국편)

### 머리말 활동기록

#### 제1부 논문편

- |     |  |
|-----|--|
| 손승철 | 14~15세기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br>- 왜구의 구성문제를 포함하여 -      |
| 이계황 |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
| 한명기 |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br>- 왜관 문제를 둘러싼 대일인식을 중심으로 - |

#### 제2부 좌담회 토론문

#### 제3부 연구사편

- |     |   |
|-----|---|
| 이재범 | 고려 전기 한일관계사 연구 현황                                     |
| 김보환 | 한국 내 왜구 연구의 학술사적 검토                                   |
| 한문중 | 조선전기 한일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br>- 2000년~2007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 |
| 노영구 | 임진왜란의 학설사적 검토   |

#### 제4부 사료해제집편

- |             |                    |
|-------------|--------------------|
| 손승철·김강일·이상훈 | 중·근세 한일관계 사료해제집 해설 |
| 손승철·김강일     | 조선시대 한일관계 사료해제     |
| 이상훈         | 임진왜란 관련 사료해제       |

### 제3권(제2분과 일본편)

머리말

활동보고

#### 제1부 논문편

- |          |   |
|----------|---|
| 사에키 고지   |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
| 구와노 에이지  | 동아시아 세계와 文祿·慶長の 役<br>- 朝鮮·琉球·日本에 있어서 對明外交儀禮의 관점에서 - |
| 스카와 히데노리 | 17~18세기의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br>-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접속 -         |

#### 제2부 좌담회 토론문

#### 제3부 연구사편

- |           |   |
|-----------|---|
| 모리히라 마사히코 | 10세기~13세기 전반 麗日關係史의 諸問題<br>-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 |
| 나카다 미노루   |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
| 아라키 가즈노리  | 16세기 日朝交流史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
| 나카노 히토시   | 文祿·慶長の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
| 야마구치 가요   | 日本에 있어서 왜관 연구의 동향                               |

#### 제4부 사료해제집

- 사에키 고지·스카와 히데노리·구와노 에이지 편  
중세·근세 일한관계 사료해제집



## 제4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1부 한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과정과 상호관계

제1장 주권과 독립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하라다 다마키

大韓國國制와 제2차 일한협약 반대운동  
-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방식 -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장 권력과 국민

조성윤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의식 형성과정과  
반일의식  
비평문(하라다 다마키), 집필자 답변

쓰키아시 다쓰히코

근대 조선의 국민국가 창출과 입헌군주제론  
비평문(주진오), 집필자 답변

제2부 일제 식민지기 조선과 일본의 사회변동

제1장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

류승렬

일제하 조선통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 조작과 강제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 오카모토 마키코      조선총독부 관료의 민족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 민족문제와 민족격차의 내포 -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 제2장 근대화
- 정태헌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 야마다 간토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화와 일본어 교육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 제3장 전시체제
- 정혜경      송출과정을 중심으로 본 전시체제기 조선인 국외노무동원의 성격  
비평문(아리마 마나부), 집필자 답변
- 아리마 마나부      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 ‘朝鮮人’  
- 영상사료를 실마리로 -  
비평문(류승렬), 집필자 답변

## 제5권(제3분과편)

한국측 간행사

일본측 간행사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제3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화

제1장 경제

허영란

해방 이후 식민지 법률의 정리와 탈식민화  
- ‘구법령’ 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요시오카 히데미

일한 경제관계의 신 전개  
- 2000년대의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2장 외교

이석우

연합국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집필자 답변

기미야 다다시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의 청구권 문제 재고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제3장 대중문화

이성환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집필자 답변

야마나카 지에

‘기껏해야 만화’를 통해서 보이는 일한 사회는  
비평문(이석우), 집필자 답변

## 제4부 사람의 이동과 여성

## 제1장 사람의 이동의 한일상호비교

하종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비평문(오니시 유타카)
오니시 유타카	제국의 형성·해체와 주민관리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 제2장 여성의 사회진출의 한일상호비교

양현아	식민지 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 문제 비평문(하루키 이쿠미)
하루키 이쿠미	근대 일본과 조선의 良妻賢母主義 비평문(하종문), 집필자 답변

## 자료집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 제6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 제1부 이념

#### 〈교과서와 근대·근대성〉

- |                       |   |
|-----------------------|---|
| 정재정                   |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그려진 근대의 肖像<br>- ‘15년 전쟁’과 ‘식민지 조선’ -<br>비평문(야마우치 마사유키), 집필자 답변 |
| 정진성                   | 한일 근대사 서술의 젠더 편향성 비교연구<br>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
| 야마우치 마사유키<br>·후루타 히로시 |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共通文化論의 궤적<br>- 아시아주의와 세계사 교과서 -<br>비평문(정재정)                       |

### 제2부 제도·편찬

#### 〈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

- |          |  |
|----------|--|
| 이찬희      |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제도의 변천<br>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집필자 답변   |
| 야마무로 겐토쿠 | 교과서 편찬으로 본 역사교육<br>-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전후 검정 교과서의 경우 -<br>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
| 나가시마 히로키 |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의한 역사교과서 편찬과 ‘國史/朝鮮史’<br>교육 - 小田省吾로부터 中村榮孝 그리고 申奭鎬로 -<br>비평문(정진성), 집필자 답변 |

## 〈교과서문제의 史的 전개〉

신주백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사적전개  
 - 1982년과 2001년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  
 비평문(나가시마 히로키), 집필자 답변

이데 히로토

전후 일한의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교육정책·교육학의 여러  
 모습

·후쿠시마 히로유키

·이시다 마사하루

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 제7권(교과서위원회편)

교과서위원회 공동보고서 발간에 붙여  
교과서위원회 공동연구 활동 보고

#### 제3부 기술

#####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

- |         |   |
|---------|---|
| 현명철     | 일본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관<br>비평문(야마무로 겐토쿠)                     |
| 오타 히데하루 | 전근대의 일한관계와 대외전쟁<br>- ‘朝鮮의 役’의 제문제 -<br>비평문(현명철), 집필자 답변 |

##### 〈교과서에 나타난 근대법 질서와 국가〉

- |       |  |
|-------|--|
| 김도형   | 韓日 歷史教科書의 ‘近代 韓日關係와 條約’ 서술<br>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
| 기무라 간 | 일한 양국의 역사관과 근대 그리고 근대적 법질서<br>비평문(김도형), 집필자 답변   |

#####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현대사〉

- |                        |   |
|------------------------|---|
| 신주백                    |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현대·현대사 서술의 변화<br>(1945년~현재)<br>비평문(시게무라 도시미쓰) |
| 시게무라 도시미쓰<br>·이이무라 도모키 | 일한 상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br>- 현대사 기술방식 분석 -<br>비평문(신주백), 집필자 답변         |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민족운동〉

- 연민수                    日本歴史教科書の 古代史 서술체계와 民族·天皇問題  
비평문(기무라 간), 집필자 답변
- 이노우에 나오키        한국·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사 기술  
- 문제점과 변천 -  
비평문(이찬희), 집필자 답변





## 한국측 간행사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보고서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햇빛을 보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도 여기까지의 거쳐야 했던 과정이 너무도 힘들고 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지도 모른다.

사실 근현대사를 포괄하고 있는 3분과는 역사의 굴곡이 많았던 만큼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 대단히 많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분과들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한일 간에 공동연구주제를 정하는 것조차 긴 시간을 필요로 할 만큼 한일 간 인식의 차이는 대단히 넓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에 따라 합의된 10개의 주제를 4부로 나누어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1-3부는 근현대사를 세 시대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제 4부는 시대를 뛰어넘는 주제로 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는 각 위원들이 각 부를 하나씩 담당하기로 하고 위원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6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자를 위촉하였다. 그동안 모든 발표는 합동분과회의를 통해 양국의 위원들이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제1기 위원회부터 계획했던 자료집을 이번에 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기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성과로서 근대 이후 한일간에 체결된 주요 조약을 추려 자료집으로 간행했다. 1기에서부터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기에 매우 다행스런 결과라고 생각한다.

처음 임명되어 1년 반을 일본 측 위원들이 결정되어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측 위원들은 매달 모여 생산적인 2기 활동을 위하여 주제를 모색하고 공동의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2년 반이 소요되었지만 실제로 한국 측 위원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모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 일정과 연구활동에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모두 감수하고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자부할 수 있다.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양국의 공동연구보고서 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을 같이해 왔다고 생각된다.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힌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 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한걸음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는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보고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위원들을 도와 준 일본측 사무국의 아이카 마리코 선생과 한국측 사무국의 은정태 선생에게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도 이 기회를 통해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한일 간의 역사대화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9년 11월 28일

제3분과 한국측 위원 일동

## 일본측 간행사

이 책은 제2기 일한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3분과의 보고서로서 간행하는 것이다.

제3분과는 근대사와 현대사를 담당했다. 같은 근대사·현대사라고 해도 일본과 한국에서는 시대구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19세기 중반부터 현대까지를 3시기로 구분하고, 제1기는 19세기 중반부터 1910년까지, 제2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제3기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1기를 제1부, 제2기를 제2부, 제3기를 제3부라고 하였고, 시대구분과 상관없는 주제를 다루는 제4부를 두어, 전체를 4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의 주제는 ‘일한 근대국민국가의 수립 과정과 상호관계’, 제2부는 ‘식민지기에 있어서의 일본과 조선의 사회변동’, 제3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한관계의 형성과 변화’, 제4부는 ‘사람의 이동과 여성’이다.

주제 설정에 있어서는 일한 쌍방이 합의한 2007년 9월 2일의 ‘공동연구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현재적이고 의욕적인 주제를 선정했다. 참고로 ‘공동연구의 기본취지’는 다음의 3가지이다.

- 1) 실증적·학문적 입장에 서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 2)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종합적이며 상호적으로 다루어 연구를 진행한다.
- 3) 문화와 여성으로도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1)은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공동연구가 일한 양국의 상호 이해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실증적·학문적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2)는 이번 우리의 공동연구에 있어서 특히 유의한 것 중 하나이다. 자칫하면 우리는 자국의 역사에 관심이 치우치기 쉬운데, 이번에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울러 일한 양국의 역사를 동일한 시야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시도는 더욱 긴밀해지는 일한 양국의 현황을 세계적 시점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의한 일이라고 확신한다.

#### 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3)은 이제까지의 일한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빈약했던 ‘문화’와 ‘여성’에 눈을 돌리  
자 한 것이다.

이 결과 위원에 여성 1명(일본), 집필자에 총 7명(일본 4명, 한국 3명)이 참가할 수 있  
었고, 각 집필자로부터 역작을 기고 받았다. 주제에 있어서도 여성에 관한 것을 다룰 수  
있었다.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까지의 아카데미즘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대중문  
화를 다룰 수 있었다. 우리의 의욕적인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가성파로 일본과 한국간의 조약집을 자료집으로 실을 수 있었다. 제1기 위  
원회 이래 일본측은 자료집을 보고서에 넣을 것을 제기해왔는데 이번에 실현되어 기쁘  
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의 협력에 감사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일본측 위원 가운데 핫토리 다미오(服部民夫)씨와 후임인 요코타 노부코  
(横田伸子)씨는 몸이 좋지 않아 도중에 퇴임하고 최종적으로 하루키 이쿠미(春木育美)씨  
로 교체된 것을 언급해 두고 싶다.

2009년 11월 28일

제3분과 일본측 위원 일동

## 제3분과 공동연구 활동 보고

### 2007년

- 6월 23일 제1차 합동분과회의 (東京·뉴오타니호텔, 제1회 전체회의 동시개최)  
한국측 연구위원 : 주진오, 류승렬, 하종문, 이석우  
일본측 연구위원 : 原田環, 服部民夫, 有馬學, 大西裕
- 9월 1일~2일 제2차 합동분과회의(서울·코리아나호텔)
- 10월 6일~7일 제3차 합동분과회의(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회의실)
- 11월 24일 제4차 합동분과회의(서울·롯데호텔, 제2회 전체회의 동시개최)

### 2008년

- 2월 16일~17일 제5차 합동분과회의 (鹿兒島·鹿兒島도큐호텔)  
공동연구주제 확정
- 4월 1일 服部民夫 위원 사임, 横田伸子 위원 취임
- 4월 26일~27일 제6차 합동분과회의 (인천·인하대학교)  
(발표자)  
이석우 연합국 최고사령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한일 외교관계의 구축
- 6월 7일 제7차 합동분과회의 (東京·빌라폰테뉴 汐留, 제3회 전체회의 동시개최)  
(발표자)  
山中千惠 문화교류에 있어서의 팝 컬처의 블랙박스화를 넘어서  
有馬學 전시기의 의미  
- 1930~40년대 일본의 문화표상 속의 '조선인' -
- 8월 8일~9일 제8차 합동분과회의 (札幌·北海道大學)  
(발표자)

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 月脚達彦 동아시아 내셔널리즘 비교연구 서설  
- ‘불평등조약’을 중심으로 -  
岡本眞希子 식민지시기 조선의 정치사를 둘러싼 시각에 대하여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미발표)  
류승렬 日帝强占期 植民地朝鮮 倭勢力의 支配이데올로기  
操作과 强制 (미발표)  
하중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미발표)

- 8월 31일 横田伸子 위원 사임  
9월 24일 春木育美 위원 취임  
11월 29일 제9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4회 전체회의 동시개최)  
12월 19일 심포지엄 개최 (東京·뉴오타니호텔)

**2009년**

- 2월 16일~17일 제10차 합동분과회의 (서울·프레이저 플레이스)  
(발표자)  
류승렬 일제하 朝鮮統治 勢力의 支配이데올로기 操作과 强制  
정태현 식민지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징  
정혜경 송출과정을 중심으로 본 전시체제가 조선인 국외노무동  
원의 성격  
허영란 해방 이후 식민지 법률의 재편과 탈식민화 - ‘구법령’ 정  
리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  
4월 24일~25일 제11차 합동분과회의 (오키나와·沖繩都호텔)  
(발표자)  
山田寛人 ‘지배를 위한 조선어 학습’을 생각한다  
吉岡英美 일한경제관계 - 국교정상화 이후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  
木宮正史 전후에서의 일한의 외교관계(가제)  
하중문 일본 본토 거주 조선인의 생활과 ‘동원’  
7월 4일 제12차 합동분과회의 (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회의실)

(발표자)

- 大西裕 어중간한 제국-주민 관리와 외국인관리
- 春木育美 良妻賢母 사상과 여성의 사회 진출(가제)
- 塚本孝 전후 일본의 영토문제-竹島 / 독도문제를 중심으로 (미 발표)

8월 22일

제13차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시티호텔 마포)

(발표자)

- 조성윤 일본 하나부사 공사 일행 조난비와 민중의 대일본 인식
- 原田環 근대 동아시아 국가의 존재 양태 - 大韓國國制와 대외 조약
- 주진오 19세기 말 조선의 자주와 독립
- 양현아 식민지시기 한국가족법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국가제도화와 ‘관습’문제

9월 20일

제14차 합동분과회의 (東京·일한문화교류기금회의실)

(발표자)

- 山田寛人 식민지 조선에서 언어와 근대화 (재발표)
- 木宮正史 한국에서 바라 본 대일 자금 도입의 최대화·최적화 :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재론 (재발표)
- 塚本孝 전후의 일본 외교와 영토문제 (미발표)

11월 15일

간사회의 (서울·롯데시티호텔 마포)

11월 28일

제15회 합동분과회의 (서울·롯데호텔, 제5차 전체회의 동시개최)

(발표자)

- 이성환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 조성윤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의식 형성과정과 반일의식 (재발표)

\* 위 발표제목은 발표문에 의거했다.